

2차 이사회 · 대의원회 초록

2024년 1월 13일(토요일) 동부 오후 3시, 서부 낮 12시 Zoom 화상회의
Zoom 참석:

채규철(59) 김한중(62) 김태웅(63) 최영자(66) 이건일(68) 서윤석(68) 주광국(68)
김성환(71) 강유구(71) 서인석(73) 전경배(75) 한승신(76) 남명호(81) 김자성(85)
강민중(91) 박은경(00) 허원제(02) 박혜성(06) 이익재(08) 송경민(09)
김영애(김성환 부인) 존 백(fund manager) 제이미 김(사무장)



Proxy:

이만택(58) 최종진(59) 최홍락(60) 강창욱(61) 한기현(63) 권정덕(64) 최준희(64)
최순채(66) 신규호(68) 김일영(71) 조병선(71) 이원택(71) 최영철(71) 이성길(71)
고용규(73) 나두섭(73) 한민우(75) 안우성(76) 최광휘(76) 차민영(82) 이선규(89)
임경빈(99) 김태곤(01)

1. 2024년1월 13일(토요일) 동서부 zoom 화상회의로 이사회가 김성환(71)사회로 시작 됨.

2. 지난 이사회 초록(2023년 9월 23일)을 요약하여 읽은 이후 참석 전원의 동의를 받고 대의원회의 각 부서 보고가 이어짐.

3. Treasurer(85 김자성)의 재무 서면 보고:

2024년 1월 10일 현재의 은행 잔고 액수와 2023년 7월 1일에서 2024년 1월 10일 현재까지의 동창회비의 합계와 각 committee fund의 합계액을 보고 함.

4. By Law committee report(73 서인석, 76 한승신):

서인석(73), 한승신(76), 서귀숙(84), 박계영(90), 강민중(91) member로 지난 이사회를 통하여 제의한 By Law Amendment에 대한 사안에 승인을 요청함.

(1) 대의원회 구성에 대하여:

Regional chapter 회장들과 각 동기대표에 대한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각 지역에 회원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active한 활동이 현재 없다 하더라도 유지를 하고, 숫자도 적고 활동이 없는 chapter는 대의원회 구성원에서 제의를 하여 정족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데에 동의가 있었음.

각 동기대표 또한 졸업 년도 별 미주에 온 숫자가 적은 동기에 대해서는 몇 동기를 합쳐서 동기대표를 구성하며 실제로 대의원회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동기대표를 형성해 보자고 동의가 있었음.

(2) 대의원회 구성원인 전 회장의 참여는 없애기로 하였음.

(3) 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에서 매 회기 갖는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개최는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대로 이사회 2번과 대의원회 2번을 기초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같은 날 이사회를 마치고 대의원회로 진행을 하여 승인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를 얻었음.

(4) 각 committee meeting 이후 Minutes를 만들어야 한다.

(5) 총무는 회의 날짜 2주 전까지 대의원회 이름을 알려야 한다.

(6) 대의원회의 정족수는 전체 대의원회의 1/3을 넘겨야 한다.

(A) 총무는 term시작 2주 전에 names of Delegates를 publish 한다.

5. Finance committee report(71 김성환):

2023 회계연도의 세금보고 준비는 한갑수 회계사가 2024년 2월에 준비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보고를 함.

6. Fund Management committee report: (존 백 fund manager과 71 강유구)

AXA lifetime payment 올해의 받은 총금액을 발표하고, 특별투자 15만불에 대한 이자금액과 원금을 발표 하였다.

2023년 지속된 금리 상승으로 채권가치가 하락되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되었으나 금리 인하 예상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fund manager의 보고가 있었음.

장학기금 위탁은 그대로 하되 그 외의 투자로 Allianz의 index를 보이며 동창회 기금을 은행에 두는 것보다는 이 투자로 일부를 넘기는 것에 대한 fund manager의 제안이 있었음.

매 회기 1만불과 이자에서 장학금 2만불을 넘는 액수가 다시 fund로 보내 지는 것이 회기 말 인데, 동창회의 동의를 얻어 이번에는 1월에 check을 보내는 것으로 승인이 되었음.

현재 동창회의 은행잔고에 무 이자로 있는 대신에 2024년 7월에 시작되는 차기 회기 시작 시점부터 위에 제시한 특별 투자로 Scholarship fund로 들어온 것은 옳는 것에 동의와 제청이 있었음.

7. Scholarship committee report(01 김태곤, 08 이익재):

멤버: 서인석(73), 이선희(81), 강민중(91), 김태곤(01), 조수정(03), 이익재(08)

(1) 2023 가을학기 미주교포 자녀 9명에 대한 장학생에 대한 1차 장학금이 전달되었고, 감사 편지를 받아서 donor와 편집위원회와 Website committee에 전달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Progress report를 받은 이후에 2차 장학금 check이 발송될 예정이라고 보고 하였음.

(2) 1971 졸업하신 김일영 동문께서 10만불을 scholarship에 donate 하시어 사용처는 매 해 재정지원 필요한 의대생 혹은 의대지원생을 대상으로 하여 미주교포 자녀에게 각 \$5,000씩 2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를 밝히시어, 2024년부터 김일영 장학생 2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3) 김태웅(63)donor는 지금까지 해 왔던대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미주교포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되기를 원한다고 다시 확인을 하였다.

(4) 모든 donor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창회는 취지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

8. Research & Fellowship report: (06 박혜성, 91 강민중):

이번 시계탑에 현재 추진 중인 Research & Fellowship 의 추진 계획의 필요성을 전 회원께 알리며 새로운 납입서에 이 항목 추가를 하겠다.

젊은 미주 동문이 병원에서 자리잡는데 이득이 될 종자돈을 support하는 것인데 두 방향으로 현재까지는 잡고 있다. 2025년부터 한승신(76) 동문의 매년 5만불 donation 약속을 하였다. 1명 혹은 2명의 젊은 동문을 선별하여 지원을 research grant 혹은 Academic career development에 하는 것으로 상세 방법은 계속 의논 중이라며 도표를 제시하였다.

다른 계획은, 한미 동조로 한국 본교 동아리에서 미국에 정착을 원하는 학생 지원과 연구 추진금 지원으로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협조 요청을 차기 회장, 남명호(81)의 2024년 2월 한국방문에서 할 계획이다.

(1) 본교 서울의대와 논의 중으로 본교 동아리 MExIM의 학생에게 미주 의료계 견문 보조금으로 5만불 지원

(2) 한미 공동 연구기금(정식 명칭은 추후 결정)으로 5만불: 아직 의논 중이다.

9. Green Project report(99 임경빈의 PPT를 91 강민중 발표):

Scholarship committee와 Research & Fellowship committee와 연계하여 extended GP meeting을 통하여 미주 내의 Green Project member들의 모임을 활성화 계획으로 현장 모임과 on line모임에 대한 세부사항의 PPT 발표가 있었음.

각 지역별 젊은 동문의 현장 모임 지원에 \$4,000과 on line 2번의 모임 지원에 \$1,000으로 총 \$5,000 연간 지원을 요청하였고, 전원 동의와 제청이 있었음.

10. 시계탑 편집위원회 보고(68 서윤석):

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 명부는 2024년 발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편집을 거친 후 2~3개월 후 한국에서의 인쇄할 예정이다. 오늘 승인된 ByLaw와 동창회 연혁 등도 게재될 것임.

2024년 7월이 되면 시계탑의 50주년이 되는 데, 다음 번 학술대회에서 시계탑 50주년 기념 행사를 예정한다고 밝혔다. 이 기념행사에서 역대 편집장들의 노고를 회원 모두에게 알리는 기회를 만들겠다 하였다.

시계탑 편집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현 편집위원의 노고와 원고를 투고해 주시는 회원들께 감사 인사를 하며, website committee와 함께 모든 동문의 소식을 받는 대로 시계탑에 올려 알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시계탑은 계간이므로, 최신 소식들은 Website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시계탑 1월호부터 회비 납입서에 Research and Fellowship donation category를 넣기로 하며, article로 전체 회원에게 알려겠다고 하였음.

11. Charity report(66 최영자, 85 김자성):

Charity committee 지원 중 가장 큰 지원으로 Africa의 2군데 우물 지원이 진행되면서 추가로 1966년 동기에서 1개 지원, 서윤석(68)부부 지원 1개, 최영자(66) 1개 지원으로 총 5개의 우물 지원이 되어서 열악한 환경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오염이 안 된 물을 마시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발표함.

우물지원 사업 외에 아프리카 빈민층 초등학생의 점심 지원에 \$2,500 지원요청에 동창회가 동의와 제청이 있었다. 이에 동참을 할 회원은 최영자(66), 김자성(85) Charity chairman에게 연락을 하던가 시계탑, Website를 참고하면 된다.

12. 전경배 회장의 참가자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 있었고, 이제 격년으로 코비드 사태 이후 학술대회 진행을 하게 된 것을 처음인데 Gap year에는 zoom을 이용하여 Scientific session은 할 계획임.

In person으로 만남은 활성화 된 chapter의 모임에 그 지역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참석을 원한다면 참석비 지원을 동창회 차원에서 할 예정이며 앞으로 동창회의 방향 전환에 유동적인 방침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밝히며 회의를 마무리 하였다.

참석자의 사진 촬영으로 이사회가 마무리 되었다.